

1. 참가 활동 내용(사진 포함 가능)

1일차) 호안끼엠 호수 주변 관광 및 하노이 대학 캠퍼스 투어

개인 수하물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가자마자 더운 열기가 느껴졌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 시원한 날씨라는 가이드님의 설명을 듣고 앞으로의 일정이 걱정되었다. 하지만 걱정도 잠시, 쌀국수와 같은 현지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 후 가이드님의 설명을 들으며 하노이 대학 캠퍼스와 오페라 하우스를 방문했다.



▲ 이지앤북스 제공

오페라 하우스.

파리의 국립 오페라하우스를 모델로 건축된 대표적인 프렌치 스타일의 건축물이라고 한다. 건물 외관이 정말 아름다웠지만, 하노이 대학 캠퍼스와 오페라 하우스 둘 다 내부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외관만 감상한 것이 아쉬웠다.

다음으로는 호안끼엠 호수에서 전동차를 타고 호수 주변과 골목 구석구석을 탐방했다. 날이 정말 더웠는데 이동수단을 타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어 정말 좋았다.



▲ 위키피디아 제공

성 요셉 성당.

멀리서 보고, 가까이에서 보고 그 위엄에 압도당했던 건축물이다. 베트남에서 관광했던 방문지 중 아직까지도 손에 꼽히는 기억나는 명소 중 하나이다. 이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 하노이에 지은 성당으로 하노이 대성당이라고도 불린다고 한다. 서구 양식과 베트남 양식이 혼합된 건축물로 유명하다.

2일차) 하노이 코트라 및 롯데백화점 하노이센터 방문

가장 많은 기대를 했던 하노이 코트라 방문. 코트라에서 재직하셨던 한상곤 교수님의 지원과 도움으로 하노이 코트라 무역관을 방문할 수 있었다. 이희상 무역관장님께서 베트남 경제/투자 동향 및 시장특성에 관해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다. 중간중간 국제통상학과 전공과목에서 수강했던 내용이 있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식사를 한 후에는 롯데백화점 하노이센터를 방문하였다. 이 역시도 한상곤 교수님께서 해외문화체험 일정 전에 미리 연락하시고 일정을 잡아주신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롯데마트부터 아쿠아리움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쇼핑시설이 있었다. 7월 9일 기준, 1년도 되지 않아 매출 2000억을 돌파하며 누적 방문객 수도 8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3일차) 자유연구

3일차는 팀별 자유연구가 진행되는 날이었다. 우리 팀의 연구 주제는 '베트남 주요 관광 도시에서의 팁 문화 현장 조사'였다. 팁 문화가 보편화되지 않은 베트남의 특성상 확실히 팁 문화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던 마사지, 인력거, 나룻배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를 정했고, 추가로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팁을 받는지도 연구해보고자 했다. 그리고 자유연구의 첫 활동은 마사지가였다.

베트남 팁 문화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은 마사지샵이었다. 마사지샵마다 팁을 지불하는 방법이 달랐으며, 마사지 가격 자체에 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마사지 가격 이외에 팁을 원하는 만큼 지불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상 외로 달러보다 베트남 돈을 선호하고 있었고, 팁을 받는 다른 업종으로는 네일샵이 있으며, 적당한 팁 가격은 전체 금액의 5% 정도라는 직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네일샵에서는 업소에서 지정해둔 팁 액수를 선택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인력거를 탔는데, 요금을 결제할 때 팁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았고, 또한 따로 요구하지도 않아서 의외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력거 탑승 전에 합의된 금액의 두 배를 요구해서 당황스러웠다.

또한, 팁 문화는 배달 업계에서도 활용되고 있었다. 배달비와 별도로 배달 기사에게 팁을 지불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다. 다만 이 역시도 필수가 아닌 선택이었기에 원하는 만큼 지불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3일차는 아니지만, 4일차에 진행되었던 나룻배 관광에서도, 서비스가 종료된 후 노꾼에게 팁을 주는 것이 암묵적인 관례 형태로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일차) 닌빈 방문 및 바이딘 사원 관광

마지막 날에는 닌빈을 방문했다. 닌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주목한 도시로 알려져 있다. 나룻배를 타며 주변 자연경관을 감상했다. 동굴 안으로 세 차례 가랑 들어갔었는데, 이러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즐거웠다.

바이딘 사원은 대규모 사원 단지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곳으로 알려져 있다. 사원의 규모가 큰 만큼, 사원 단지 주차장에서 사원 입구까지 전동차로 15분 정도를 이동해야 도착할 수 있었다. 찾아보니, 이러한 경우, 사원 입구, 종각, 관세음전, 석가불전, 삼세불전, 불탑 순으로 관람할 수 있으며, 도보로 이동할 경우에는 역순이 된다고 한다.

2. 참여 소감 및 향후 계획

단순 관광지 방문이 아닌, 코트라와 롯데백화점 하노이센터 방문 등 무역 분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소를 방문한다는 점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가이드님도 열심히 설명해주셔서 간단한 베트남어 회화도 알 수 있었고, 특정 장소에 대한 특징들 또한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김한성 교수님께서 국제통상입문 강의 시간에 '지역을 알고 사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주시며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해보는 것을 추천해주셨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뜻깊은 시간이었다.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3. 프로그램 주관 기관 및 대학에 바라는 점

앞으로도 이러한 해외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되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해외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국제통상학과를 복수전공 혹은 부전공하는 학우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으면 합니다.

4. 다른 학우 및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단순 관광지 방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장소의 특성을 파악하고 코트라 및 롯데백화점을 방문하고 현지 직원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진로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러한 프로그램 모집 공고가 올라온다면 참여할 것을 추천드립니다!